

##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 지원 전통예술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14:00~18:00
  - 2024년 12월 10일(화) 9:45~17:45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은아, 소경진, 유민희, 윤중강, 한지영

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금상첨화(錦上添花)란 말이 떠오릅니다. 비단 위에 꽃이 놓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 예술의 2차 제작지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측면에서 심의에 더욱 신중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전통 속 전통' '전통 위 전통'이라고 말해도 좋고, '창작 속 전통' 또는 '전통 뒤 창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간의 동시대성 또는 실험성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차 제작으로 거듭나게 되는 작품이 '21세기의 전통' 또는 '미래의 전통'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구(考究)하는 자세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예술'의 기반 위에서 얼마나 작품을 더욱 완성되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2차 제작지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혹여 작품 속에서 전통예술이 소재의 차원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극복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전통예술의 맥(脈)'을 보다 더 신중하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차 제작 작품에 대해서는 '전통'과 '창작' 혹은 '전통성'과 '동시대성', '실험성'과 '완성도'의 이항대립 속에서, 작품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음을 밝힙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은 결국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때,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간의 작품 제작 과정과 결과물이 '넓이'에 해당했다면, 이번 2차 제작 지원을 통해서는 작품의 '깊이'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말을 바꾸면 지난 제작에서는 치중했던 '스케일' 안에서 더욱 예술적으로 성숙한 '디테일'이 들어가야 할텐데, 대체적으로 2차제작 지원단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알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와 '작품의 지향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동시대성,

예술성, 실험성이라는 삼자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화합적으로 융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에서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예술적 작품'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공연에 대한 냉정하고도 입체적인 평가를 관련 단체와 함께 허심탄회(虛心坦懷)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체에게도 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제작과정을 다시금 복기(復碁)하면서, 지원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제작의 일련의 프로세스의 합리성과 목적성, 더불어 예산편성의 적절성 또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더욱 작품을 빌드업하여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적 작품으로 완성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차 제작사업에 지원한 단체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무엇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심의과정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하기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현명하게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공연유통을 위해서 타깃 설정이나 공연 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다 더 넓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획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차 제작지원 단체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의 전문성을 더욱 요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획과 유통을 보강함으로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다 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제작지원에선 더욱더 치중해야 할 것이 예술적 완성도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경향을 두루 살피면서, 이번에 만들 작품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2차 제작지원 대상 작품은 '전통 기반'으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제시를 더욱 더 선명하게 해 줄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곧 '미래의 전통'이 바로 전통예술 2차 제작 작품에 기대를 거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2차 제작에 참여한 모든 단체를 그 적용 여부를 떠나서, 심의위원회는 크게 응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